

# 90 시멘트 決算書

金 淳 三

〈韓國洋灰工業協會 企劃課長〉

저물이 가는 庚午年 한해의 시멘트업계를 돌아 보자.

88년 이래 오름세를 지켜 온 建築景氣는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계획과 관련된 新都市開發의 본격 推進, 土地公概念制의 도입, 다양한 建築規制緩和措置 등의 好條件이 증복 가세하여 폭발적인 시멘트 소비를 부추기다가 급기야 4월 말부터는 供給能力의 한계로 시멘트 수급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게 이른다.

이에 업계는 공급물량의 극대화를 위해 시설보수 마저 뒤로 미룬채 年中 풀 稼動狀態를 힘들게 유지하면서 벌크와 포장시멘트, 중앙과 지방의 출하량을 조절하고 포장시멘트의 경우 특약점과의 협의를 통해 다수의 소량 실수요자에게 두루 공급될 수 있도록 特約店 直販制에 나서는 등 한정된 供給物量을 적절히 배분하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정부 또한 5월부터 내수공급 증대를 위하여 수입을 연계한 수출추진제 및 수입축진을 위한 割當關稅制를 긴급 실시하고 需要진정책으로 불요불급한 관급공사 유보 및 일반상업용 건축에 대한 許可制限措置를 취하는 한편 연중 수급동향을 일일 점검하는 등 시멘트의 非常需給對策을 서두른다.

그런 외중에서 설상가상으로 9월의 集中豪雨는 일부 생산공장을 침수시키고 主輸送路인 철도를 불통시켜 막대한 생산 및 수송차질을 가져와 공급의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킨다.

9월 9~11일까지 3일간 중부지방에 내린 集中豪雨는 쌍용 영월공장과 아세아 제천공장, 성신 단양

공장을 몰에 잠기게 했는데 쌍용 영월공장과 아세아 제천공장은 불행중 다행으로 일부 생산시설만 침수되어 5~7일만에 복구되었으나 성신 단양공장은 전 공장이 완전 침수되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정부 및 업계의 신속한 지원과 전종업원이 합심하여 복구에 나선 끝에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른 11월 말에 완전히 복구되었다. 여하튼 9월 수재로 인하여 약 700천톤의 생산차질을 비롯 中央線, 嶺東線, 太白線의 철도 곳곳이 流失 또는 매몰돼 中央線만 긴급복구되었을 뿐 嶺東線은 약 15일, 太白線은 한달 정도 걸려서야 재개통됨으로써 수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90년은 업계의 증설공사가 절정을 이룬 한해이기도 하다.

3월의 아세아 3호 키른 및 성신 2호 키른 NSP공사 완공을 필두로 6월 한일 5호 키른 증설공사, 9월 아세아 4호 키른 증설공사, 11월 동양 6호 키른 증설공사, 12월 한라 2·3호 키른 증설공사가 속속 완공되어 생산능력이 年 11,281천톤 증가하여 42,104천톤에 달하게 되었다.

이제 지난 한해의 시멘트 수급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1. 需 給

90년의 시멘트 수급은 공급능력의 한계로 매우 어려웠던 한해였다.

89년 이월 재고가 크렁카 319천톤, 시멘트 348천

톤에 그친데다 備蓄期인 1·2월중에도 적정량을 비축하지 못한채 성수기를 맞게 되어 연중 需給差跌을 막기 위하여 전력을 기울여야 했다. 특히 건설경기의 지속적인 호황과 9월의 수해는 수급상황을 더욱 어렵게 했다.

금년 內需는 건축경기의 지속적인 활황으로 전년보다 19.5% 증가한 33,700천톤 정도를 시현한 바 전년의 12%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두자리 숫자의 높은 상승을 보였다.

輸出入部門에서는 수입을 연계한 輸出推薦制, 수입촉진을 위한 割當關稅制 실시로 수출은 크게 감소된 반면 수입은 상당히 늘어나 國內需給에 적잖게 기여한 바 있다.

수출은 수출물량의 한계로 기존 거래선에 대한 최소한의 輸出履行에 그쳐야 했고 수출지역도 거의 일본에 편중되었으며 업계는 수출시장관리를 위한 수출 쿼터량 확보를 위하여 출력을 감수하면서 수입을 촉진하여야 했다. 실적은 전년보다 42.6% 감소한 1,919천톤에 머물렀다.

수입은 國內需要的 폭증, 9월의 시멘트 공장 수해, 정부의 割當關稅制 및 수입을 연계한 輸出推薦制 실시 등으로 급증한 한해였다. 5월부터 수입이 시작된 포장시멘트는 2,366천톤에 달해 國內需給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9월 시멘트 공장 수해로 인한 供給不足難 해소에 이바지한 바 크다. 크링카의 경우도 수출 쿼터량 확보를 위한 업계의 수입촉진으로 급증하였다. 크링카·시멘트를 합친 실적은 3,294천톤으로 전년보다 대단한 증가를 보였다. 내수와 수출을 합한 總需要도 내수의 호조로 前年對比 12.9% 증가한 35,619천톤을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生産活動도 호조를 보여 98.4%의 높은 稼動率을 시현하였다.

## 1) 生 産

금년의 크링카 생산은 29,396천톤으로 전년대비 5.0% 증가했으며 시멘트는 33,318천톤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하였다. 생산호조에 따라 年平均 稼動率도 98.4%를 시현하였는데 분기별로 살펴보면 1·4분기 87.3%, 2·4분기 101.4%, 3·4분기 100.1%, 4·4분기 104.7%로서 비수기인 1·4분기만 90%를 약간 下廻하였을 뿐 全分期가 100%를 上廻하는 좋은 실적을 보였다.

업체별로 보면 고려가 119.8%, 한일 106.2%, 한라 105.8%, 아세아 100.6%, 동양 100.1%, 쌍용 99.8%, 현대 92.6%로 이들 7個社는 生産能力을 훨씬 상회하였거나 거의 풀 稼動에 육박하는 수준을 나타냈으나 9월에 전공장이 침수되어 11월 말에야 복구가 끝난 성신만이 74.5%의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성신의 경우는 천재지변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업계전체로는 모두 공급확대에 전력을 기울였다 할 것이다.

## 2) 內 需

금년도 內需는 33,700천톤으로 89년 대비 19.5%의 높은 伸張率을 나타냈다.

이를 분기별로 살펴보면 1·4분기 29.2%, 2·4분기 6.8%, 3·4분기 22.7%, 4·4분기 23.6%로 2·4분기를 제외하고는 20%를 상회하는 폭증현상을 나타냈다.

연초부터 일기 시작한 이같은 내수증가의 주요인은 전반적인 경기침체하에서도 지속적으로 활황을 보이고 있는 建築景氣를 들 수 있다. 이에 90년 1~10월중 건축 許可延面積을 살펴보면 同期間的 총면적은 99,022천㎡로 전년동기비 36.7% 증가하였다.

이를 用途別로 보면 住居用이 58,562천㎡, 商業用이 24,801천㎡, 工業用이 8,899천㎡, 文教·社會用이 4,032천㎡, 其他 2,729천㎡로 각각 전년동기비 54.7%, 11.3%, 21.3%, 20.9%, 71.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商業用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둔화된 것은 5월 이후 국가 경제 운용상 긴급하지 않은 건물에 대한 허가제한에 따른 결과라 할 것이다.

건축허가 연면적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주거용이 59.1%, 상업용이 25.0%, 공업용이 9.0%, 문교·사회용이 4.1%, 기타가 2.8%로서 시멘트 투입비증이 큰 주거용이 건축경기를 주도하고 있다.

91년에도 지속적인 건설경기의 호황과 地自制選擇特需 등으로 상반기 중에는 수급상황이 빠듯할 것으로 예상되나 增設物量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2·4분기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여 하반기에는 완전히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 (1) 季節的 出荷實績

시멘트는 상품의 특성상 수요의 季節性을 지니고 있으나 그 같은 추세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다. 특히 금년의 경우에는 국내산 시멘트의 供給能力 부족으로 인하여 수입시멘트의 內需寄與度에 따라 수요패턴이 변동되었다.

90년의 월별 수요를 指數로 살펴보면 1·2월이 각각 53.1, 60.4로 平均値를 크게 밑도는 非需期로 나타났고 8·10·11월은 각각 112.8, 111.4, 128.0으로 平均値를 上廻하는 盛需期로 나타났다. 특히 예년의 성수기였던 9월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그 이유는 水害와 그로 인한 輸送蹉跌에 기인했고 11·12월이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增設工事 完工으로 인한 供給能力의 확대와 수입시멘트의 國內市場 寄與度가 높았던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11월의 內需는 3,594천톤으로 月間 史上 最大를 기록하였다. 이는 日平均 약 132천톤이 출하된 셈이다.

分期別 出荷構成比는 1·4분기 6,131천톤, 2·4분기 8,709천톤, 3·4분기 9,197천톤, 4·4분기 9,663천톤으로 각각 18.2%, 25.8%, 27.3%, 28.7%로 나타났다. 이는 年初 국내산 供給能力 부족으로 인하여 수요가 順延된 결과로 輸入시멘트의 國內市場 寄與度에 따라 需要가 변동되었음을 나타낸다 할 것이다.

## (2) 需要部門別 및 品種別 出荷

需要部門別 內需出荷는 民需 31,520천톤, 官需 2,180천톤으로 이는 전년대비 민수가 20.9%, 관수가 1.7% 증가했고 그 구성비는 민수가 93.5%, 관수가 6.5%로 전년의 민수 92.4%, 관수 7.6%보다 민수는 1.1% 포인트 상승한 반면 관수는 1.1% 포인트 하락하였다. 이는 총소비물량의 증가에 비해 관수물량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불요불급한 官給工事を 연기한 결과로 分析된다.

品種別 내수출하 실적을 보면 벌크 시멘트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벌크화율의 향상은 輸送 效率의 증대, 보관과 관리의 容易, 유통의 단순화, 荷役費用과 포장비용의 절감 등 이점이 많아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90년의 벌크 출하는 20,888천톤으로 國內產 總出荷의 66.1%로 전년도 63.3%보다 2.8%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절대량으로는 17.0% 증가하였다. 월별로 살펴보면 비수기인 1·2월과 수급상황이 아주 어려웠던 5·6월이 각각 56.3%, 58.6%, 65.4%, 66.0%로 平均値보다 낮았다. 이는 同期間中에 消費地 備蓄 및 不特定 多數人에게 골고루 공급하기 위하여 포장시멘트 생산을 늘린 결과라 해석된다.

## (3) 在 庫

89년말 667천톤의 재고를 이월 받은 90년은 備蓄期인 1·2월에도 이상난동으로 인한 예상외의 내수 증가로 인하여 재고가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성수기를 맞이해 年中 수급조절에 크게 고심하였다.

월별로 살펴보면 備蓄期인 2월의 1,750천톤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재고는 5월 614천톤으로 年中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상반기중 완료된 증설 시설 가동과 잦은 비로 인하여 6월부터 꾸준히 회복되기 시작하여 年末에는 1,479천톤 정도가 예상되나 이는 90년 초와 같이 예상치 못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를 감안한다면 91년 盛需期를 대비한 적정수준의 이월 재고로는 부족한 量으로 적정수준의 재고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非需期인 내년 1·2월 중에 생산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 2. 輸 出 入

90년의 輸出入은 정부가 國內需給安政策의 일환으로 5월부터 수입을 연계한 수출추천제 및 수입 할당관세제를 실시하여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크게 증가하였다.

수출은 크링카와 시멘트를 합하여 출하기준 1,919천톤으로 전년의 3,342천톤보다 1,423천톤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대비 57.4%에 머물렀다. 90년 전체 수출의 97%를 차지한 주요 수출국인 일본, 마카오, 미국, 싱가포르의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각각 1,432천톤, 301천톤, 82천톤, 46천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71.4%, 90.9%, 31.1%, 70.8%로 모두가 전년보다 감소된 실적을 보였다. 이는 연초부터 폭증한 內需市場 安定을 위하여 5월부터 실시한 수입을 연계한 수출추천제 실시로 수출이 규제된 때문이다.

정부는 상공부 고시 90-22호로 종전의 수출자등 품목이었던 시멘트를 수출제한승인품목으로 고시하고 5·6월은 89년 年間 수출실적중 생산업체별 점

90 시멘트 수급 총괄

(單位 : 천톤)

			89	90	전년비 (%)
크링카	생 산 (가 동 료)		28,008 (93.8)	29,396 (98.4)	105.0
	수 출		893	362	40.5
시멘트	생 산		30,474	33,318	109.3
	수 내수	민 수	26,065	29,420	120.8
		관 수	2,145	2,180	102.9
		계	28,210	31,600	119.5
	요	수 출	2,449	1,557	63.6
		계	30,659	33,157	115.0
재 고	크링카		319	970	304.1
	시멘트		348	509	146.3
	계		667	1,479	221.7
수 입	크링카		416	1,558	374.5
	시멘트		—	2,366	—
	계		416	3,924	943.3
수입시멘트 포함 총내수			28,210	33,700	119.5

註 : 1) 90년 12월은 추정치. 2) 수입시멘트중 90년 내수기여 2,100천톤으로 추정.

유 비율로 163천톤을 안분 배정하고 7월 이후에는 수입실적의 50%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하여 50%의 수입물량을 국내수요에 충당토록 하였다.

정부는 연초부터 폭증하는 국내수요를 국내산 시멘트 공급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 아래 수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상공부 공고 90-20호로 90. 5. 19일부터 90년 말까지 300만톤에 한하여 5%의 관세를 무관세로 통관케 하는 할당관세제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수입은 크링카 1,558천톤, 시멘트 2,366천톤이 수입되었다. 크링카는 전년실적 416천톤보다 1,142천톤이 증가하였으며 시멘트는 78년 제2차 수급과동 이후 12년만에 2,366천톤이 수입되어 국내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이를 국별로 살펴보면 중국 2,975천톤, 사우디아라비아 284천톤, 인도네시아 206천톤, 시리아 159천톤, 요르단 132천톤, 아랍에미리트 87천톤, 기타 81천톤으로 그 구성비를 보면 각각 75.8%, 7.2%, 5.2%, 4.1%, 3.4%, 2.2%, 2.1%를 나타

냈다. 특히 수입의 75.8%를 점유한 중국산 시멘트의 경우 수입 초기 수입상사들이 품질 및 항만하역은 감안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수입한 결과 저품질과 하역의 지연으로 인한 수입단가 상승으로 국내산과 경쟁이 되지 못하여 판매에 고전하였으나 9월 수해 이후에는 국내산 시멘트의 가격폭등과 구입난으로 전량판매되었다. 그러나 12월 이후에 수입된 물량은 가격과 품질면에서 국내산과 경쟁이 안되고 있어 재고로 남을 전망이다.

결국 시멘트 수출추천제와 시멘트 수입할당관세제는 국내수급 해소에는 크게 기여했으나 그간 꾸준히 다져온 동남아 시장과 호주, 미국 및 남태평양 제군도 등의 수출시장을 상실케 하는 한편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시장에 대하여도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

향후 증설분이 본격 가동되어 공급과잉 상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동시장의 회복은 물론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